인물탐방 용호동 중앙해수랜드 박희채 대표

# "내 삶의 목표는 진정한 봉사입니다"

## 패기와 뚝심으로 어려움 이겨내고 자수성가
## 라이온스 활동하며 소외된 이웃 내몸같이 살펴

박희채 대표는 사심없는 사회봉사로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두가 '예'할 때 '아니요'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광고 카피가 있다. 경우는 약간 다르지만 세계적인 불황에 허덕이는 이때 건실한 사업가로, 활발한 사회봉사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이가 있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빈손으로 시작해 수많은 좌절을 이겨내고 패기와 뚝심으로 오늘에 이른 (주)중앙레포츠 박희채(55)회장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또 국제라이온스협회 355-A지구(부산) 지구부총재이기도 하다. 입회 10년 만에 최단기간, 최연소 부총재가 된 입지전적 인물이다.

남이 죽는다할 때 돈을 벌어야 지 남 잘 될 때 돈을 벌면 사업가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는 세계금융 불황인 지금이 가장 호기라고 힘주어 말한다.

특유의 면모가 호기심을 자극한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들려달라고 하자 맨 먼저 어머니 얘기부터 꺼낸다. 17살에 결혼한 어머니는 25세 때 첫아들인 박 회장을 낳았단다. 근 10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으니 그 설움이 오죽했을까. 집에서 세 번이나 쫓겨났었다는 얘기를 할 땐 눈시울이 붉어졌다.

새벽 불공을 다니느라 발톱이 몇 번씩이나 빠지는 고통 끝에 얻은 자식이라 그 애정이 각별하다고.

박 회장이 태어난 곳은 경남 거창군 가조면. 쌀장사를 하는 부친 덕에 유복한 어린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행복했던 기억은 중1때까지였다. 아버지가 빚보증을 잘못한 관계로 친척의 도움을 받아 겨우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단다.

오직 먹고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부산으로 오게 된 것이 17세 때. 국제시장에서 직물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만 7년 동안 한 우물을 팠다. 주인이 이북사람이었는데 10원짜리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 습관을 그 때 배웠다.

그동안 저축한 돈으로 독립해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꽤 짭짤한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1979년 드디어 직물점을 차렸지만 얼마 못가 폭삭 망하고 말았다. 경영기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탓이었다. 그 무렵은 동향인 부인 이용술(55) 씨와 결혼한 상태였다.

만신창이가 되어 어쩔 줄 모를 때 정신적으로 가장 큰 힘을 실어준 분이 88년 작고하신 부친이라고.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란다.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자신의 잘못으로 자식 공부를 제대로 못시킨 것이 천추의 한이 됐던 부친은 형제들 간에 보증은 절대 하지 마라는 유언을 남겼다. 남 못살게 하고 잘 살 생각하지 마라는 부친의 가르침은 그의 삶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2004년 용호1동에 (주)중앙해수랜드를 개업하면서 업체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창업정신을 바탕으로 해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성금 및 성품을 기증해 오는 것도 작은 예에 불과하다. 매년 용호지역 어르신을 초청, 식사대접과 함께 무료 목욕 서비스 실시, 홀로어르신 초청 경로잔치는 물론 오륙도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봉사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박 회장은 업체의 문을 열 때부터 회사의 이익에 상관없이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다짐 한만큼 그 이익을 사회에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100여명의 일자리 창출에도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날의 그에게는 또 한번 커다란 시련이 있었다. 1985년 우여곡절 끝에 동양도자기 부산총판을 하면서 1억8천만원 부도를 당했다. 벼랑으로 내몰아진 그는 죽으려고 태종대 자살바위로 갔다. 못 먹는 술을 마시고 이승을 하직하려는 순간 그를 붙잡은 것은 아이들이었다. 내가 뿌린 씨앗은 내가 책임지고 잘 키워야 한다는 강한 부성애가 다시 마음을 다잡는 기폭제가 됐다고. 죽으려는 용기로 살아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으리란 자신감을 얻었다. 그래서인지 수많은 난관을 겪으면서도 IMF 때 오히려 사업을 일으키는 반전을 일궈냈다.

그에게도 바람이 있다. 2012년 부산에서 열리는 라이온스 세계대회가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 행사인 만큼 성공리에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년 3월에 있을 대의원 대회 때 신임획득을 해 무난히 총재 취임을 하는 것. 라이온스는 부총재 때 선거를 하고 총재 때는 신임투표만 하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총재가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는 지금 늦깎이 대학생이다. 전공을 물어보니 사회복지학과란다. 과연 그다운 선택이다. 인생의 최종목표가 진정한 사회봉사라는 박 회장의 진심이 묻어 있다. 좀더 체계적으로 잘 봉사하기 위해 대학원까지 마칠 예정이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그는 특히 인간관계를 중시한다. 만남보다 헤어짐에 더 무게를 두는 이유이기도 하다. 만남이 이어질 때는 나쁜 감정이 생겨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헤어지는 상대와는 평생 풀 수 없는 숙제가 되는 탓이라고.

'계영배'에 관한 얘기를 들려주면서 70%만 채워야 하는 무욕의 지혜와 비움의 철학을 모두에게 나눠주고 싶다는 소박한 마음을 전했다. 사소한 것에도 욕심을 부리던 자신의 삶이 새삼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다.

[참고] 계영배(戒盈杯) :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특별하게 만든 잔. 술을 가득 채워서 마시지 못하도록 술이 어느 정도까지 차면 술잔 옆의 구멍으로 새게 되어 있다.

한정미 명예기자

■ 반 / 갑 / 습 / 니 / 다

## 용호동 화합에 일조

김 창 주
용호향우회 신임 회장

"용호동 발전과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주씨가 최근 용호초등학교에서 열린 용호향우회 정기총회에서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창주 신임회장은 취임일성으로"인구 9만 명의 거대도시로 변모한 용호동의 계속적인 발전과 수 백 년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주민 모임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용호향우회에 대해 묻자 "향우회는 토박이들로 구성된 친목단체로 지난 90년 발족해 현재 320여 명의 회원이 애향심과 봉사의 마음으로 고향을 지키고 있다"며 "최근에는 더불어 사는 지역을 가꾸기 위해 봉사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향우회는 그동안 정월대보름 기원제와 오륙도축제 기원제, 장자산 기원제, 용호동 동제, 향사 등을 봉행하며 용호동 지역 고유의 전통을 계승발전 시켜 오고 있다"고 밝히고 "10여 년 전부터는 이기대공원 순환도로변 일원에 동백나무를 심고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며 내고장 가꾸기 사업도 계속 펼쳐오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김 회장은 "조상들의 훌륭한 전통은 계승 발전시키고 날로 발전하는 용호동에 걸맞는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전 회원의 중지를 모을 계획"이라며 "궁극적으로 용호동 지역 주민들이 서로 단합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살맛나는 고장을 만드는데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화 명예기자

## 청소년문제 해결 나서겠다

박 봉 수
부산시 청년연합회 신임 회장

"기금 조성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 돕고 봉사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 회원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박봉수 전 남구청년연합회장이 지난달 25일 조방 앞에서 열린 부산시 청년회 임시총회에서 제2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박봉수 회장은 선출과 함께 청년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다짐했다. 우선 기금 마련을 위해 부산시와 협의해 주차장 사업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과 손잡고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연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물론 청년회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역 봉사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박 회장은 시민들이 바라는 청년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원들의 결속과 단합에 있다고 보고 회원 확충을 통한 봉사활동 영역을 넓혀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회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애쓰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오래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방범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회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봉수 회장은 지난 96년 용호4동 청년회 활동을 시작으로 청년회와 인연을 맺은 후 남구청년연합회장과 시 사무처장, 상임부회장을 역임했다.

## 장학재단 설립할 터

김 광 명
남구청년연합회 신임 회장

용호3동 김광명(세경기획 대표)씨가 지난달 21일 열린 (사)부산시 남구 청년연합회 대의원 선거에서 2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광명 신임회장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동 청년회의 사기진작을 위해 역대 선배회원들과 지역 유지들의 협조를 얻어 장학재단을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회원확보의 어려움으로 결원이 된 2개동의 청년회를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시키고 올해 처음 열어 큰 호응을 얻었던 '남구 오륙도 청소년 음악제'를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해 명실상부한 음악제가 될 수 있도록 정착화 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남구청년연합회의 내실과 화합에 역점을 두어, 기존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각동 청년회 현안사업들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11년 전부터 청년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김 회장은 "봉사란 내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실행 하는 것"이라며 청년회의 재도약을 다짐했다.

김광명 회장은 초심의 마음으로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며 회원들과 함께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조상영 명예기자

# 우암영어체험센터 'Good!'

## 수강신청 봇물 영어교육 메카로 급부상

지난 10월 문을 연 우암영어체험센터가 내실있는 운영과 어린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새로운 영어교육의 지평을 열고 있다.

우암초등학교(교장 윤을선)내에 위치한 센터에는 화~금요일까지 동천초등학교 등 인근 초등학교 3~4학년 학생 70여명이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 수업에 참여해 영어실력을 키우고 있다. 어린이들은 모두 12시간 자신의 연령과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원어민 교사와 내국인 강사 등으로부터 영어로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를 하며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고 있다.

이종철 구청장은 지난 19일 센터를 찾아 동천초등학교 4학년 1반 어린이들의 수업을 참관 알차고 유익한 영어교육의 장이 돼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입소와 함께 모든 대화를 영어로 하며 미술과 환경음악 등 6개 테마로 짜여진 재미있고 유익한 영어학습을 체험하고 있다.

우암초등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방과 후 수업도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다. 첫달 수강인원이 70명이던 것이 지난달에는 140명으로 급증했다. 여기에는 윤을선 교장을 비롯한 운영진과 강사, 그리고 우수한 교육시설과 환경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센터에는 암벽타기와 영어도서관 DVD상영관 등을 갖춘 체험공간과 레벨별 학습 공간인 강의실을 4개소나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와 영어도서 온라인 콘텐츠 등을 고루 갖추고 있다.

영어체험센터 수업을 참관하기 위해 지난19일 센터를 찾은 이종철 구청장은 "우수한 강사진과 실용적이며 세련된 강의실 등을 갖춘 센터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된 영어학습을 받을 수 없는 어린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보다 더 앞선 교육 프로그램으로 알차고 유익한 영어교육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남구지역 교육예산 '풍성'

## 학교 시설 개·보수 교육환경 개선될 듯

남구지역 초·중학교에 많은 예산이 배정돼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연초등학교는 내년도 예산에 모두 6억원이 지원돼 목재바닥 보수와 복도중창교체 등 시설 개·보수 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성천초등학교는 방송장비교체와 이중창 설치 등을 위한 사업 예산 3억7,200만원이 배정됐으며 동항초등학교 역시 응벽설치 공사와 급배수관 교체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 1억3,700여 만 원이 투입돼 공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석포여중은 화장실 개량 등에 투입되는 4억6,200여 만 원의 예산이, 대연초등학교 역시 시설 개·보수 예산 4억7,600여 만 원이 확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용호초등학교 5억5,000만원, 우암초등학교 7,660만원, 용당초등학교 3,731만원을 배정받는 등 모두 27억 여 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부산시의회 행정교육문화위원회 성성경 시의원은 교육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함은 물론 부산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예산 마련을 위해서도 힘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 화제의 인물 – 동천초등학교 김 규 남 어린이

## 한자는 나의 힘

### 행동발달 장애 딛고 한자능력시험에 합격

행동발달장애 1급 장애를 딛고 한자능력시험에서 2등을 차지하고 7급 한자능력 시험에 합격한 어린이가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주인공은 동천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김규남(10·감만1동)어린이로 어릴 적부터 주의력이 결핍되고 과잉행동 등으로 인해 항상 누군가의 보살핌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이런 아픔과 장애를 이겨내고 규남이는 최근 실시된 7급 한자능력 시험에 합격, 또래 친구들과 교사들을 놀라게 했다.

규남이의 이런 기적에는 김영채 교장과 오아랑 교사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오아랑 교사는 지난해부터 규남이의 전담교사로 일하며 그림자처럼 보살피기 시작했다. 주위가 산만한 규남이를 어르기도 하고 때로는 엄하게 타이르며 학습을 도왔다. 그러던 중 규남이가 유난히 한자쓰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한자를 쓰기 시작하면서 규남이 생활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우선 집중력과 끈기가 생겼다. 가능성을 지켜본 김 교장은 지난달 21일 열린 동천 잔치한마당 행사 무대에 규남이를 올렸다. 순서에도 없던 규남이의 등장에 1천여 관중들은 의아해 했다. 하지만 규남이가 1급 장애를 이겨내고 수화 공연과 피아노 연주를 무사히 마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

김영채 교장은 "기적을 일궈낸 규남이의 노력은 급우들에게 동기를 부여함은 물론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좋은 교육 사례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항상 밝고 건강한 웃음을 띄고 있는 규남이는 또 다른 도전에 나섰다. 선생님이 되기위해 틈만나면 한자 쓰기에 여념이 없는 규남이의 모습은 언제나 행복하다.

# 대연초등학교 댄스스포츠부 전국대회 포메이션부 장려상

지난 달 22일 동주대학 체육관에서 열린 '제18회 전국 프로 아마 댄스 스포츠대회'에서 대연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댄스 스포츠 포메이션부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이번에 상을 받은 신수빈 어린이 등 2학년 학생 16명은 지난 4월부터 천혜경 교사로부터 댄스 스포츠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다. 대연초등학교 스포츠부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동아리 활동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1학년 때 가르쳤던 반 아이들을 중심으로 결성이 된 자율적인 팀이다. 어린이들은 매주 월요일과 토요일 방과 후 1학년 5반 교실에서 16명 전원이 참석해 이번 대회를 대비했다. 현재 한국교원 댄스스포츠 연합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천 교사는 지난 해 졸업한 학생들에도 댄스 스포츠를 지도해 이미 좋은 성적을 거둔 실력파다.

천 교사는 "댄스 스포츠는 성격이 다소 소극적인 아이를 적극적인 아이로 바뀔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운동량이 많아서 아이들의 체력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현재 댄스 스포츠를 배우고 있는 서수빈 학생은(대연초등 2) "댄스 스포츠를 친구들과 뜻을 모아 열심히 하는 것이 너무 신난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말했다. 류진아 명예기자

■ 사람과 사람

### 청소년協 새회장에 선출

오용현(대연6동·늘푸른 건설 대표)씨가 지난 18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남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월례회에서 새회장으로 선출됐다.

### 볼링국가대표 선발

박은선 남구청 볼링팀 선수가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에서 열린 2009~2010년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됐다.